

# 나주시, 2026년 주민과의 대화 순회 일정 마무리

### 20개 읍면동 순회하며 현장 중심 소통 행정 강화 주요 시정 비전 공유하고 지역 현안 해법 모색 주민 의견 460여 건 수렴... 생활 밀착형 정책 반영

전라남도 나주시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개 읍면동을 돌며 진행한 '2026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월 7일 남평읍을 시작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시정 방향과 지역 발전 비전을 공유한 '2026 주민과의 대화 일정'이 지난 1월 21일 문평면을 끝으로 현장 중심 소통 행정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나주시에 따르면 주민과의 대화는 나주시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정비, 마을안길 확장·포장, 배수로와 도로 정비 등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총 467건의 건의가 나왔으며 대면 290건, 서면 177건의 정책 제안과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분야별로는 안전건설 분야 310건, 보건 복지 분야 49건, 관광문화 분야 24건, 농업 분야 17건 기타 67건으로 집계됐다.

나주시는 신청받은 건의 사항을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생명 도시, 글로벌에너지 첨단과학도시, 500만 관광도시, 균형발전 선도모델 빛가람 혁신도시, 미래인재를 키우는 명품 교육도시, 모든 세대가 골고루 행복한 나주 등 6대 추진 전략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생명 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60만 원→70만 원)에 따른 소득 안정망 구축, 농작업용 편의 의사 전 농가 보급 확대(1



만 2천773개, 5억 원)는 좋은 정책이라며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윤 시장은 또 '천년이음 나주배', '나주 들에찬한우' 등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25년 800명→26년 1000명)을 통한 인력난 해소 등 건강하고 행복한 농업환경 조성 정책을 설명했다.

글로벌에너지 첨단과학도시 도약을 위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해서는 300여 개 기업 유치와 2천여 명의 전문 인력, 1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 파급효과, 왕곡면 일원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국립 나주에너지전통과학관 건립,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 개최 계획 등을 소개하

며 에너지 중심도시로서의 비전을 공유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건의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나주라는 브랜드에 자부심을 가지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민주관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으로 나주는 지금 전국에서 주목하는 도시가 됐다"며 "2026년은 나주방문의 해인 만큼 주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가 되어 나주의 매력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주/이명열 기자



## 중아시아 고령인 청소년에 고흥의 매력 알리다

### '아름다운 대한민국' 통해 우주·자연·먹거리 매력 집중 홍보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중앙아시아 출신 고령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고흥 알리기에 나섰다.

고흥군은 하나일보 그랜드콘서트 매거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통해 고흥의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 특산 먹거리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거진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령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약 11만 명에게 배포되는 매체로, 국내 정착 청소년들의 한국 이해와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해외에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주제로 한 고흥 유자축제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를 비롯해, 남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거금대교, 해양 치유와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는 녹동바다정원과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을 집중

소개했다.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도와 국내 대표 산림 치유 명소로 꼽히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등 고흥만의 청정 자연 관광자원과 함께,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고흥의 다채로운 먹거리도 상세히 담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흥군은 이번 홍보가 중앙아시아 고령인 청소년들에게 고흥을 친근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가족 단위 관광객 및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고흥군은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주제로 한 고흥 유자축제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를 비롯해, 남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거금대교, 해양 치유와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는 녹동바다정원과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을 집중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해외에 뿌리를 둔 고령인 청소년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고흥이 매력적인 여행지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활용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고흥 관광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순천시시는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겨울방학을 맞아 순천만잡월드에서 「겨울방학 대모험! 꿈 보물찾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만들기 체험과 공연, 보물찾기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콘텐트로, 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 체험관 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뚝뚝뚝 공작소' 프로그램을 통

## 어디갈까? 답은 순천만잡월드! '꿈 보물찾기 대모험'

### 체험부터 공연·보물찾기까지, 겨울방학 재미 잡월드에서 한번에

해 4D프레임을 활용한 자전거와 자동차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에는 만들기 체험과 함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미술 퍼포먼스와 별문아트가 어우러진 '매직별문쇼', 동화 「강아지똥」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인형극이 날짜별로 운영되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꿈 보물 탐험대' 보물찾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어린이체험관 주변 곳곳에 숨겨진 보물 쪽지를 찾는 미션 활동

으로, 어린이체험관 체험을 즐긴 뒤 휴식 시간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아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순천만잡월드 관계자는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공연, 보물찾기를 준비했다"며 "순천만잡월드에서 가족과 함께 웃음 가득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장성군, 군민 혈세 14억 6600만 원 아꼐다

### 김한중 군수 "건전 재정 운영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노력"

장성군이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총 14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는 군이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 관해 예산 사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품셈 등 관련 자료와 사업의 목적, 규모,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의 적합성, 설계변경 증감금

액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특히,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 등에 적절한 사업비가 책정됐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지난해 장성군의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총 229건으로, 군은 △공사 89건 7억 8100만 원 △용역 81건 6억 7800만 원 △물품 59건 700만 원을 절감했다. 장성군이 최근 3년간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 규모는 총 47억 3100만 원에 이른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혈세를 한 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 구례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적극 운영

###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 안전처리 체계 구축

구례군은 산불예방과 병해충 발생 저감 등을 위해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하여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연평균 51.5ha의 파쇄 성과를 달성하였다.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분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파쇄지원단 운영은 산불 예방 효과는 물론 영농부산물 소각 무효성 인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건조기에는 영농부산물 소각 불티로 인한 산불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업인 홍보와 파쇄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이틀간 파쇄기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으며,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집중 파쇄기간은 상반기(1월 말~5월)에 영농부산물과 과수 잔가지, 하반기(9월~12월)에는 발작물 부산물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 영암군,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성과 공유

### 세한대와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주민 체감형 건강관리 성과 공유

영암군이 21일 군청에서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지난해 7~12월 추진한 프로젝트의 지역 수요 맞춤형 통합돌봄 인재 육성, 주민 체감형 건강관리 성과를 확인·공유하는 자리였다.

영암군과 세한대학교는 지난해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찾아가는 마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했다.

6개월간 교육과 현장 프로그램을 병행해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건강관리·운동·통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자 만족도조사에서 5점 만점에 4.88점을 받는 등 영암군민이 체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성

과 △주민 만족도 △지역 고교 연계 프로그램 성과가 공유되고, 통합돌봄 사업 지속 가능성이 논의도 이뤄졌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양성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올해 사업 참여자를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고도화해 영암형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영암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